

## 소셜 워크에 관한 연구방법론의 과제

- 전후 일본에 있어서 소셜 워크 연구방법론의 비판적 고찰 -

岡本民夫\*

번역 : 박태영\*

### I. 들어가는 말

전후 일본에서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전개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소위 사회사업시대의 상태와는 그 시책의 기반에서도 또한 제도의 구조나 운용에서도 꽤 큰 변혁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수반되는 실천적 방안도 크게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후의 새로운 사회복지지는 일본이 고도성장을 이루기까지 어느 정도 실질적인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성숙은 사회복지 시책을 구체화하여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문적인 방법·기술인 이른바 소셜 워크 물질적·금전적 서비스와 비교하면 부가적 의의와 기능만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다루어진 사회복지 기술·방법론은 제도정책의 미비와는 반대로 매우 고도로 발달된 이론 내지는 논리를 구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 현장 내지 임상에서는 고도로 발달된 소셜 워크의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러한 기술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맨파워는 계통적으로 교육되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이론 수준과 기술·방법을 담당하는 직원과의 사이에는 큰 gap이 존재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요컨대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소셜 워크를 적절히 받

\* 同志社大學 教授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아들여서 기능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하드, 소프트 및 휴먼 웨어가 준비·정비되지 않았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책과 사회복지 실천이론 사이에 몇 가지의 문제점이나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이론 요컨대 소셜 워크 이론은 그 생성과정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경험적 기반, 역사적 배경, 사상, 종교, 가치관, 문화 등의 다른 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의 사회복지 현장이나 임상에 잘 적용되고 정착해 왔는가에 대하여 음미해야 할 점이 남아있다. 동시에 소셜 워크가 일정한 영역의 사회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는 기술로서의 보편성 또는 모든 인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에서의 일반적 기능이나 역할에 관한 적극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일본의 사회복지제도와 소셜 워크와의 관계이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외로 검토 과제로서 채택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요컨대 소셜 워크의 기본적 원리나 실천상의 원칙이 일본의 복지제도의 원리나 원칙 또는 일본이 사회복지의 기본적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조치제도와 대립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는 소셜 워크 그 자체의 문제로서 재고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다. 즉, 소셜 워크의 생성과정이나 구성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20세기 초엽에서부터 종래의 원조 활동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경험에 전면적으로 의거하는 방식에서 제 과학의 법칙이나 소건을 도입·채용 혹은 응용하여 소위 과학적인 원조실천의 방법·기술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큰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는 소셜 워크가 과학적으로 되기 위하여 또한 전문기술로 체계화되기 위하여 관련 인접 제 과학의 법칙이나 소건에 크게 의존하고, 혹은 실제로 도움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지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스스로 내발적인, 자생적인 방법이나 기술을 생성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결과가 초래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사회복지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시점으로서 본 인간관 특히 인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total person으로써 전인적 인식을 기초로 하여 실천하는 것을 답습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동시에 인접 제 영역과의 협력이나 연계 등 이른바 팀워크를 전개할 필요가 종래보다 한층 커진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의 실천이론인 소셜 워크를 인접 제 영역과는 상호에 배타적으로 독자적이고 고유의 이론으로서 성숙화 하고 있는지, 그 기능, 방법, 기법 등 실천기술로서의 독자성이나 고유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인간에 관한 과학이 급속하게 분화하고 발전한 결과, 전문영역간에 학제화가 진행되어 한층 고도화가 추진되

고 있으며, 상호간의 이론이나 기능 등이 끝없이 접근하고 유사하며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 이러한 것은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셜 워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발적·자생적인 것보다 인접 제 과학에 크게 의존하고 그것을 응용해 온 경향이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복지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만들어 낸 전문적 방법·기술이기보다는 인접영역으로부터 차용해 온 말하자면 빌려 온 과학이며 실천이었다는 것이 스스로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막상 팀워크를 만들어 유기적인 협력이나 연계를 가지려 할 때, 그 대상, 관점, 방식, 기법 등에 있어서 인접영역에 대하여 공헌할 수 있는 독자의 역할이나 기능이 무엇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소셜 워크는 자기정체성에 대하여 빈민하고 괴로워하는 점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하면서, 전후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형성발전과 현상, 더 나아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II. 전후 일본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발전과 반성

사회복지 실천이론은 광의로 해석하면, 사회복지실천에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셜 워크란 용어로 대치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한 개념이므로, 여기서는 소셜 워크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내용적으로는 케이스 워크, 그룹 워크, 지역사회조직, 사회복지조사, 행정, 사회행동 등을 표현하는 단어로써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으로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문제삼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면관계상에서 도저히 무리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케이스 워크를 중심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그런데 케이스 워크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경우, 사회복지의 시책과 관련하여 실천이론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전후 일본의 시대구분을 해 보고자 한다. 필자의 저서인 「케이스 워크 연구(1973)」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달단계를 구분한 바 있다.

- 1) 제1기 - 1945년에서 1949~50년까지
- 2) 제2기 - 1950~51년에서 1953~54년까지
- 3) 제3기 - 1954년에서 1959~60년까지
- 4) 제4기 - 1960~61년에서 1973년경까지

이상과 같이 전후의 시대구분을 4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 이후 사회복지의 변화 특히 오일 쇼크나 달러 쇼크를 거쳐 복지 수정론이 대두되었으며,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하여 복지는 본격적으로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더욱이 거품경제로 인하여 표면상 호경기였지만, 거품경제의 붕괴로 일본의 사회경제는 종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이 향후를 전망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거듭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의 방향성도 크게 개혁 내지는 변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시금 사회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이 긴급한 테마로서 클로즈업되고 있다. 1994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의 답신(1994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후 약 반세기에 걸쳐서 지속되어 온 사회복지에 관한 이념이나 대상의 파악방법, 나아가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나 운용방안까지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근거로 한다면 상기의 구분에 더하여 새로운 시대구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한 사회복지실천의 바람직한 방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음은 그 후의 사회복지시책과 소셜 워크의 관련성을 명확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대구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5기는 「1974~75년에서 1990~91년까지」의 약 12~3년 간으로 설정하고, 제6기는 「1992년~93년에서 현재까지」로 설정해 보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안이지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 Ⅲ. 당면과제와 전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전후 약 반세기 중에 사회복지 실천이론은 상당히 고도화를 도모해 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북미에서 발달한 소셜 워크 모델(approach)을 번역, 도입, 소화, 응용, 실천이라는 전개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확실히 북미의 사회복지 실천이론은 선구성, 선진성, 독자성, 유효성 등 매우 우수한 면을 가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에서는 그 이론이나 방법을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정할 것이 아니고, 또한 일본의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그 혜택을 입었다고 의미에서 크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이나 이론을 북미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최근 국제교류도 빈번해지고 국제무대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도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경제나 과학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일정한 공헌이 기대되는 시대로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사회복지의 이론에 있어서도 또한 실천이론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때때로 외국의 복지관계자로부터 일본은 명치(明治) 이래 선진 외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번영·도입하는 일에 여념이 없어 일본의 독자교육의 문화를 가꾸어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비판이나 평가를 받을 때도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독자성이 있고 고유한 문화나 사상, 제도 등 우수한 측면도 있지만 유난히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이러한 지적은 유감스럽게도 꽤 큰 폭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이론 즉, 소셜 워의 방법·기술 영역에서는 미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셜 워에 관한 주민이나 대중의 필요성, 욕구의 양적·질적인 차이가 있음은 말할 여지도 없지만, 사회경제 상황이 다름으로 인하여 소셜 워의 절실한 필연성과 사회인지적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본에서의 연구실천은 낙후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1. 실천의 과학화와 이론화

여기에서 이 gap을 메우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고유성을 가지고 일본 고유의 사회복지 실천이론을 창조해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일본사회, 사상, 종교, 가치관, 사고, 행동양식, 문화 등 일본의 사회구조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분석·음미하여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독창적인 실천이론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신적인 실천이론을 근거로 하는 실천에서 배우고, 그로부터 얻은 시대나 사회구조를 초월한 인류 공통의 방법·기술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현장이나 임상에서 사회복지실천가 즉, 소셜 워커들이 평소의 일상 업무를 통하여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 체험 등을 기반으로 지도로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러한 자료로부터 일정한 법칙성이나 규칙성을 추출하여 이론으로 만들어 가는 귀납법적인 방법이나 기법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것을 「실천의 과학화」라고 호칭해 왔다. 이러한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복지현장과 연구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연구방법론 즉,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소위 과학적 방법에

대한 재고를 해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전, 전후를 통하여 일본의 사회복지의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 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도입·채용하여 사회복지의 운용·전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연구방법도 선진 외국의 기법을 가져온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사회복지 방향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측면의 유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선행 연구성과를 검토해 보면,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 제 과학의 방법론에 크게 의존한 과학방법론 밖에 없고 사회복지의 내발적이고 자생적인 연구방법론이 극히 적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 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이 독자적인 것이기보다는 인접 제 과학의 방법을 차용하여 응용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이 일본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을 지탱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등 인간을 원조하는 전문영역이 상호협력하고 연계하여 포괄적, 종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문영역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영역을 가지면서도 공통목적을 위하여 고유의 입장에서 독자의 공헌을 하는 것이 기대되고, 그 분담부문에 책임을 지고 그 임무를 적절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접근방법에 독자성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각 전문영역이 앞으로 한층 고도로 분화하여 고유성이나 독자성을 발휘하면 할수록 사회복지도 일단은 그 고유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존재의의나 공헌도가 막연해 질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각각의 전문영역이 오랜 연구와 실천의 역사 속에서 그 나름대로 실적과 성과를 확실히 쌓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후발 영역으로 발달하여, 그 실적과 성과에 있어서는 아직도 충분한 내용이 없고, 독자적인 과학방법론을 가지고 발전시켜 다른 전문 제 영역과는 상호배타적으로 고유한 접근방법을 고안해 내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주변 제 과학의 성과나 법칙을 응용하여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독자성과 고유의 존재의의가 의문시되어 그 존망(存亡)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제 과학이나 실천에 있어서 일정한 전문적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독자적으로 발상하고 창조하여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이론을 구축해 나가야 할 시기에 와 있다.

## 2. 클라이언트 욕구정보의 논리화와 이론화

다음은 이러한 실천의 과학화에 더하여 지금의 포스트모던 사조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클라

이언트 주체의 복지이론 구축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정보 발신을 소셜 워커가 지원하고 임파워링(empowering)하면서 어떻게 논리화하고 이론화 해 나갈 것인가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정보를 어떻게 파악하여 논리화하는 기법의 구축과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필자는 CANPS(Computer Aided Nursing Planning System) 과 SARA(욕구 파악과 서비스 정보의 제공 시스템), 에코 맵(생태학 지도)의 활용, mapping practice(소셜 워 원조과정의 프로차트) 혹은 질적 조사법에 기초한 개별면접법이나 집단면접법에 의한 임상현장경험 법칙의 추출 작업 등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다.

### 3. 소셜 워 연구방법론의 변증법적 전개

더욱이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과거 약 한 세기 간의 소셜 워의 연구와 실천을 돌이켜 보고 연구방법을 반성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① 과학적 연구와 실천, ② 실천의 과학화와 이론화, ③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하는 욕구정보의 축적과 논리화·이론화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 가지의 연구방법론을 더욱 발전·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들 방법론을 변증법적으로 전개하여 그 논쟁 속에서 인접 제과학과는 상호 배타적으로, 독자적이고 고유한 소셜 워 과학방법론(독자적 과학방법과 고유의 실천기법)을 개발·발견 혹은 발명해 나가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